https://doi.org/10.5392/JKCA.2018.18.04.254

이혼 후 재혼(동거)가정 내 계부모에 대한 호칭 관련 심리적 기제에 관한 연구-상담에의 함의

A Study about Psychological Mechanisms Regarding the Appellation of the Stepparent by Children of Reconstituted(Cohabited) Family after Parents' Divorce-Implications for Counseling

안희란*, 김연진**
부경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ee-Lan An(morkyang@naver.com)*, Yeon-Jin Kim(bobo8176@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부모 이혼 후 재혼(동거)가정 자녀의 계부모에 대한 호칭을 둘러싼 갈등을 자녀의 시각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부모 이혼 후 재혼(동거)가정의 20대 자녀 4명이다. 자료 분석 결과, 자녀들이 계부모에게 아버지/어머니라 부르기 주저하는 이유는 '친부모가 있는데 왜 그분을 아버지/어머니라 불러야 하나요?', '아버지/어머니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필요하나요?', '그 분이 편하지 않아서 아버지/어머니라 부르지 않아요!'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혼 후 재혼(동거)가정 자녀의 계부모에 대한 호칭을 둘러싼 갈등 중재를 위한 상담의 지침을 제공하였다.

■ 중심어 : | 재혼 가정 | 계부모-계자녀 | 호칭 | 심리적 기제 | 상담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psychological mechanisms about the appellation of the stepparent by children of reconstituted(cohabited) family after parents' divorce in the child's perspective. In-depth interview was used for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Research participants four children from reconstituted(cohabitated) families after their parents' divorces.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the reason children hesitate to call their stepparents father or mother is that 'why do I need to call them my father/mother when I have my own?' 'why do I need them when I have been living just fine without them?' 'I don't call them father/mother because it is just uncomfortable!' Based on such research results, counseling guidelines were provided to arbitrate conflicts about appellations stepparent by children of reconstituted (cohabited) family after parents' divorce.

■ keyword : | Reconstituted Family | Stepparent-stepchildren | Appellation | Psychological Mechanism | Counseling |

Ⅰ. 서론

통계청의 '우리나라의 재혼 현황'에 따르면 1982년 남자 26.4천 건, 여자 17.2천 건, 1994년 남자 36.3천 건, 여자 35.6천 건, 그리고 2012년에는 남자 51.1천 건, 여자 56.5천 건으로 지난 30년간 재혼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접수일자 : 2018년 03월 20일
수정일자 : 2018년 04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4월 04일
교신저자 : 김연진, e-mail : bobo8176@naver.com

[1]. 재혼가족이 하나의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초혼가족원들은 생물학적·법적으로 정의되고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재혼가족원의 경우 경계가 불명확하다. Smart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재혼가족의 구성원일지라도 부모와 자녀 간 에 가족범주에 따른 정의가 종종 달랐다[2]. 1,700가구 이상의 재혼가족에 대해 종단 분석한 Furstenberg 역시, 재혼가족 부모의 15%가 계자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청소년 자녀의 31%가 계부모를 가족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3]. 이러한 재혼가족 내 구성원으로의 인정에 대한 불일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 가족관계의 질과 안정성을 해치고 서로 간에 분노와 실망을 낳을 수 있다.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재혼가족의 안정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4]는 점에서 재혼가족 내 구성원으로의 인정에 대한 불일치 문제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재혼여성이나 재혼남성 모두에게 친자녀가 새 배우자로부터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은 재혼을 후회하게 만드는 요인이다[5]. 차별문제는 부부간 갈등으로 이어져 가족안정성을 해쳐 또 한 번의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차별받는다는 인식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시각에 좌우되기 쉽고, 그 기저에는 친밀감의 부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재혼가정의 현실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인식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6], 이는 자녀의 적응이 재혼가족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7].

한편, 계자녀의 연령과 관련하여 청소년기(중·고등학생) 자녀가 계부모와의 긴장관계에서 최고조에 이른다는 선행연구 결과[8-12]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혼가정에서 잘 적응하던 아동도 청소년이 되면서 친부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 문제행동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13].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혼건수는 115,300건으로 이혼 평균연령은 남자가 46.2세, 여자는 42.4세였다[14].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건수는 59,000건으로 전체 이혼의 51.2%였는데, 평균 재혼연령이 남자 46.8세, 여자 42.5세임을 고려하면 재혼 가정의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가능성이 높다[15]. 청소년기는 성장이라는 과업만으로도 혼란을 겪는 시기인데 재혼가정 청소년 자녀는 그에 더하여 새 가족에의 적응이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발달과업의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시기이다[16].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로 하여금 가정의 여러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고, 정체성 확립을 격려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필요하다[17]. 하지만 청소년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재혼과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 경험으로 큰 스트레스가 예상된다[18]. 재혼가정 청소년은 초혼가정 청소년에 비해 불안을 비롯하여 슬픔,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분노, 죄책감 등 부정적인 정서들을 갖는다[8][19-21]. 또한 재혼가정 청소년 자녀들은 비이혼가정의 자녀들보다 높은 수치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우울, 공격성, 행동문제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들을 보였다[12][21-23].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자녀의 가족 내 적응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가족경계 혼란이고[15][24], 가족경계 혼란을 일상생활에서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중의 하나가 '호칭'이다. 호칭은 계부모와 계자녀 간의 심리적 거리감, 유대감을 드러내는 형태이자, 관계형성과 강화의 단초가 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호칭에 주목하고자 한다.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아버지' '어머니' 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으로 호칭 관련 갈등을 경험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정 내 계부모에 대한 호칭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기제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청소년기관,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자가 부모로 하여금 청소년 자녀를 이해하도록 돕고, 호칭 관련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청소년 자녀의 재혼가정에서의 적응을 도와 재혼가정의 안정에 기여하여, 재혼가정의 불안정이나 해체, 재혼가정 자녀의 문제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재혼가족의 경우 계부모와 계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데[25], 이러한 불명확함으로 인해 계부모들은 계자녀 문제에 어느 정도로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균형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10]. 그렇다면 재혼가정 내에서 바람직한 경계와 규칙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가족 경계와 관련된 갈등을 경험한 재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시각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재혼가정 내의 역할규범은 재혼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발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계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한 질적 연구[5]는 있으나 청소년 자녀의 시각에서 계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한 고민이나 인식 그와 관련된 정서를 깊이 있게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김효순과 하춘광은 청소년기(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재혼자를 대상으로 계부모로서의 역할경험을 탐색한 결과, 계부모-계자녀 간 친밀감 부족, 재혼가족 간 삼각관계(친부모를 계부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녀의 정서적 역기능), 계부모로서의 권위·권한의 부재, 자녀의 친부모에 대한 충성심 갈등, 전혼자녀에 대한 차별, 재혼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나타났다[5]. 이와 대비적으로 부모의 이혼 후 재혼가정 내에서 청소년 자녀가 겪는 다양한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 겪은 부모의 재혼가정에서의 경험을 살펴보면, 재혼으로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졌다거나 친부모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용돈의 액수가 많아졌다 등의 긍정적인 내용을 보고한 일부 연구[19]가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 경험으로 드러났다[8][18][26]. 청소년 자녀는 친부모와 새 배우자가 가까워지면서 섭섭하고 낯설음, 그로 인한 소외감, 자신에게는 무관심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보고된다[8][18][26]. 또한 재혼가정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으로 비양육 친부모와 교류가 어려워지면서 친부모에 대해 상실감과 그리움을 가지게 된다[8]. 한편, 계부모와의 직접적인 갈등 경험으로는 용돈과 관련된 갈등[26], 친부모와 함께 있지 않을 때 계부모의 폭력적 또는 가식적 행동[18], 일상생활과 훈육에서 의붓형제자매와의 차별[8][18]이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의 재혼을 친구들에게 숨겨야 함과 그로 인해 느끼는 친구들과의 심리적 거리감[8][26]이 나타났다. 김효순에 따르면 재혼가족을 초혼·혈연 중심의 핵가족주의에서 벗어난 '문제 가족'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재혼가족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재혼사실을 숨기고 있었다[8].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계부모와 계자녀 각자의 시각에서의 내용으로 연결시켜보면, ①계부모의 시각에서 삼각관계(친부모를 계부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녀의 정서적 역기능) vs 계자녀 시각에서 친부모와 새 배우자가 가까워지면서 섭섭하고 낯설음, 그로 인한 소외감, 자신에게는 무관심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②계부모의 시각에서 자녀의 친부모에 대한 충성심 갈등 vs 계자녀 시각에서 부모의 재혼으로 비양육 친부모와 교류가 어려워지면서 친부모에 대해 상실감과 그리움을 가지게 됨, ③계부모의 시각에서 전혼자녀에 대한 차별 vs 계자녀 시각에서 친부모와 함께 있지 않을 때 계부모의 폭력적 또는 가식적 행동, 일상생활과 훈육에서 의붓 형제자매와의 차별, ④계부모의 시각에서 재혼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vs 계자녀의 시각에서 부모의 재혼을 친구들에게 숨겨야 함과 그로 인해 느끼는 친구들과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대칭된다. 이러한 대칭들은 인간관계의 상호성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도 적용됨을 보여주며, 상담현장에서 상담가들이 계부모-계자녀 간의 갈등 개입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계부모의 시각에서 계자녀와의 친밀감 부족, 계부모로서의 권위·권한의 부재에 대비되는 계자녀의 목소리를 들은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공백인 청소년 자녀의 시각에서 계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한 고민이나 인식 그와 관련된 정서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효순과 하춘광에 의하면 계부모-계자녀 간 친밀감 부족이라는 주제에서 구체적으로 재혼자들이 계자녀와 호칭을 통일하거나 서로 친밀감을 나누면서 애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예상보다 쉽지 않음을 뒤늦게 인식함이 드러났다

[5]. ‘엄마’라고 부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거나 아예 서로 간에 호칭을 부르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이 이어졌다. 이러한 진술들은 역으로 계자녀 입장에서도 계부모를 어떻게 호칭해야 하는지, 얼마나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불명료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케 한다. 임춘희[27]에 의하면 청소년(중·고등학생) 자녀들은 부모 재혼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계부모와의 적응문제, 특히 호칭과 관련한 어려움을 꼽았다. 이는 재혼가정 내 호칭과 관련된 청소년 자녀의 인식과 정서를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부모의 재혼(동거)가족 내에서 청소년 자녀가 겪는 ‘호칭’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심리적 기제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자녀는 의붓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요구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28]와 가족 경계의 모호성에 대해 부모가 특별한 언급 없이 자녀가 알아서 상황에 대처하기를 기대하여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18]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김효순의 연구에서 계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라는 호칭을 거부하는 연구참여자의 진술문이 발견될 뿐, 호칭을 둘러싼 갈등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칭 갈등 사례를 검토, 청소년 자녀의 시각에서 호칭 갈등을 겪는 심리적 기제에 대해 탐색해 보고, 그에 대한 상담적 개입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재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계부모에 대한 호칭을 둘러싼 주관적인 갈등경험을 탐색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양적 연구는 통제적이고 환원적으로 연구의 맥락을 선택하는데 비해, 질적 연구방식은 총체적인 기술을 통해 상황의 중요한 요소들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29]. 이러한 총체적인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재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계부모에 대한 호칭 관련 갈등에 대한 주관적이고 생생한 경험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의 구체적 상황에서의 갈등, 감정의 변화, 그리고 삶 속의 정서적 흐름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심층면접을 사용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시기에 양육부모의 재혼 내지 동거를 경험하면서 계부모(동거인)에 대한 호칭 관련 갈등을 겪은 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인터뷰 당시에는 중고등학생 시기를 벗어난 20~25세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심리적 갈등이 격렬하다고 알려진 중·고등학생 시기를 지났기에, 자신의 경험에 대해 나만의 시각이 아닌 다른 가족성원의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보다 풍부하고 깊은 내용의 진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동거 친부모에 대한 충성심 갈등이 계부모와의 관계형성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30]를 고려하여 비동거 친부모와의 교류 여부를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로 비동거 친부모와 교류가 있는 남자 1명, 여자 1명과 비동거 친부모와 교류가 없는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총 4명을 선정하였다. [표 1]에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계부모에 대한 호칭 관련 갈등의 내용을 기술할 때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내밀한 정보를 분석하는 이 논문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기호로 처리하였다.

2. 연구절차

질적 연구의 깊이를 보장하도록 다양한 맥락의 연구참여자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한 결과 최종 4명의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면접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비밀 보장을 위해 주로 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 상담실과 저자의 연구실에서 2016년 5월부터 8월에 걸쳐 심층 면담하였다.

인터뷰 시행 전 모든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관한 설명은, 솔직한 경험을 진술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녹음할 것과 녹음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에 대해, 그리고 익명처리와 비밀보장에 대해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기호 연령	직 업	이혼당시연령 /재혼당시연령	주양육자 연령,학력	주양육자 직업	경제적 수입원	부모의 결혼상태	양육부모 재혼(동거)기간	비양육부모 와의 관계
A(여, 만 20세)	대학교 2학년	9세/14세	모(47세, 고졸검정고시)	식당 근무	아버지의 양육비 지원 없이 어머니의 근로소득	부-재혼, 모-동거	7~8년	중학교 이후 정기적 만남
B(여, 만 21세)	대학교 2학년	10세/16세	모(49세, 초졸)	노인복지관 식당 근무	아버지의 양육비 지원 없이 어머니의 근로소득 + 기초생활수급 지원	부-동거, 모-동거	4년	이혼 후 전혀 만나지 못함
C(남, 만 22세)	대학교 2학년	10세/13세	부(56세,고졸)	소형 건설업체 사장	아버지의 사업소득	부모 모두 재혼	11년	정기적 만남
D(남, 만 25세)	대졸 후 자동차 정비사	12세/14세	부(45세, 중졸)	자동차 정비사	아버지의 근로소득	부-동거, 모-재혼	11년	모 재혼이후 외가 대소사 에서만 만남

주: 위의 사항은 인터뷰 당시를 기준으로 함

서면으로 알려주고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구 참여를 중도에 철회할 수 있음도 서면으로 알려주고 확인하였다.

면접과정은 먼저, 1단계로 비구조화된 개방형의 질문을 사용하여 최대한 폭넓은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이혼 과정, 이혼 후 비동거 친부모와의 교류, 동거 친부모의 관계, 계부모와의 관계를 질문하였다. 2단계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연령, 부모 이혼과 재혼 당시 참여자의 연령, 동거 친부모의 연령·학력·직업, 경제상태, 양쪽친부모의 재혼(동거)여부, 재혼(동거)기간, 비양육친부모와의 교류를 질문하였다. 특히, 계부모에 대한 호칭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지각, 사고, 가치관, 신념, 기대를 포함하는 인지(cognition)는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31].

3. 자료분석

모든 면접내용은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녹음된 자료를 전사한 후, 녹음내용과 전사본을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비롯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Lincoln과 Guba의 평가기준인 일관성, 사실적인 가치, 중립성, 적용성을 지키고자 하였다[32]. 일관성과 사실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질문목록(2. 연구절차에 적시)에 의해 면접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기존부터 연구자와 상담을 통해 라포가 형성된 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사실적 가치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중립성을 지니기 위해 재혼(동거)가정의 계부모-계자녀 관계에 대해 각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1]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고 인터뷰에 임하기 전, 인터뷰 종료 후, 그리고 전사자료 분석 시에 이로부터의 영향에 대해 서로 간에 의식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전사자료의 세그멘팅 및 코딩과정을 공동연구자가 함께 진행하였다. 적용성을 지키기 위해 연구의 깊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의 연구참여자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표 1],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참여자 별 2~3회에 걸쳐 총 4시간 35분~6시간 58분, 평균 6시간 25분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시 선행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잠정적인 오류[32]를 수정하고자 하였다.

면접 내용에서 '계부모에 대한 호칭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된 진술을 찾아내어 의미단위(meaning units)로 묶어서 축코딩하였다. 이후 의미단위에서 인식의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3개의 관련 주제를 도출하였다.

1) 계부모를 가족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계부모를 좋아하는 것은 비양육친부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이혼한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에, 계부모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

Ⅳ. 연구결과

연구참여자의 면담자료를 '계부모에 대한 호칭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축코딩한 결과, 모두 3개의 주제로 묶였다. 자녀들이 계부모에게 아버지/어머니라 부르기 주저하는 이유는 '친부모가 있는데 왜 그분을 아버지/어머니라 불러야 하나요?' '아버지/어머니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필요하나요?' '그 분이 편하지 않아서 아버지/어머니라 부르지 않아요! ' 로 나타났다.

1. 친부모가 있는데 왜 그분을 아버지/어머니라 불러야 하나요?

D은 '육아가 힘들고, 자아를 찾고 싶다'며 떠난 어머니가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친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A 역시 이혼 후 5년간 자신이 연락하면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던 친아버지가 야속하지만, A에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이다. A와 D는 친부모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은 계부모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계부모를 인정하는 것은 비동거 친부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충성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와이프'에 대해 호감을 느꼈던 C 역시 마찬가지였다.

> 그래도 아줌마를 아버지와 같이 사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살라고 하는데 굳이 나한테까지 엄마 호칭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나한테 아들이기를 바라고, 내가 엄마처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나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엄마는 계신 엄마 한 분인데. (중략)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선택한 사람인데 인정해 주면 안 되겠니? 너는 아줌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때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그 말만 했던 것 같아요. (D)

> 엄마가 같이 살게 됐으니까 아저씨라고 하지 말고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거의 억지로 이러길래 거의 1년 정도 언니랑 저랑 그분한테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 말이 뱉기가 힘드니까. 그러고 있다가 아저씨라는 말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나오게 돼서 (친구들이) "왜 아저씨라고 그러니? 아빠라고 불러야지"라고.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서 아빠라고 불렀는데, 싫었어요. 그냥. 아빠는 우리 아빠, 진짜 아빠가 하나인데. (중략) 내 아빠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새아빠도 아니고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게 싫었어요. (A)

> 새엄마가 저에게 잘 해 주셨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아들, 아들." 그런데 저는 좀 어색했지요. 엄마라고도 못 부르고. 그 단어는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것인데, 잘못 된 것 같으니까.(C)

A, C, D의 '친부모가 있는데 왜 그분을 아버지/어머니라 불러야 하나요?'라는 진술은 재혼가정 자녀들이 친부모의 배우자를 자신이 부모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의 입장에서 호칭 변화 강요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 것이다. C의 '아버지의 와이프'는 이러한 C의 고민을 이해하고, 먼저 '친모의 자리를 인정'해 주어 C를 충성심 갈등에서 해방시킨다. 그리고 C는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결국은 '아버지의 와이프'를 '어머니'로 인정하게 된다.

> 아빠랑 새엄마가 (저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냐 하면은 제가 만약에 "(친) 엄마보고 싶으니 학교 안 가고 엄마한테 갈래." 이렇게 하면 "어. 갔다 와라." 새엄마도. 새엄마가 더 그랬어요. 갔다 오라고. (중략) 새엄마는 저희 엄마에 대한 것을 한 없이 인정해 주었어요. "너는 새엄마보다 친엄마가 당연히 좋을 것이다"라고, 그런 것을 입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직접. 그리고 "나는 그런 것을 다 존중해준다" 이

런 식으로. 그게 그 나이 때는 크게 안 와 닿지 만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C)

C의 사례는 계부모가 자녀에게 친부모의 자리를 인정하고 계자녀와의 관계를 시작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계부모가 처음부터 친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계자녀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 아버지/어머니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필요하나요?

D은 '육아가 힘들고, 자아를 찾고 싶다'며 떠난 친모에 대해 그리움과 원망을 함께 가지고 있다. B은 친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친부의 존재를 애써 부정한다.

엄마가 중2때 재혼하고 그 후로 이복동생. 엄마 재혼하셔서 낳은 아저씨 아들. 그렇게 생기고 한 두번 왕래만 있었고 그 후로는 제가 잘 안 만났었지요. 내가 자꾸 만나면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저 애는 누군데 저렇게 찾아오지?" 그러면 엄마 입장이 난처해지기도 하고, 재혼한 시가집에서 나오는 말이 있을 것이니까. 왜냐하면 아저씨는 총각이었으니까. 자식 버리고 와 가지고 그 자식 찾아오게 한다고 엄마에게 흠이 될까봐 그 후로는 안 찾아가고, 연락도 거의 안 했고 (D)

이혼한 이유는 폭력이랑 외도랑 직업이 없어가지고 이혼을 했었어요. 아빠는 서울에 있고, 아직 연락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중략) 아버지에게서 양육비 지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양육비를 안 주고 엄마 혼자 생활을 한 것이지요. (중략) 아빠에게 연락해서 '양육비 왜 안주냐?'고 '우리도 힘든데.' 하면서 따지고 싶었는데 연락할 방법도 없고, 어디에서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B)

이러한 B와 D에게 양육 부모의 새 배우자는 잊고자 하는 비양육친부모를 되새기게끔 하는 불편한 존재이다.

아버지 생각하면 (아줌마에게) '어머니'라고 해주어야 맞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굳이 한다고 달라지나?'라는 생각. (중략)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엄마가 솔직히 (육아가 힘들다고 자기를 찾고 싶다고) 자식 내 팽개치고 갔는데 (중략) 내가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하나? 엄마 없이도 잘 컸는데 굳이 필요하나? 라는 생각.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는데 굳이 이제 와서 내가 엄마가 필요하나?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줌마를) 거부하는 것도. 무의식중에 있나 봐요. 상처 아닌 상처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거부하면서 밀어내는 것 일 수도 있을 거라고 요즘 들어서 생각 들더라고요 (D)

어릴 때부터 아빠랑 같이 살지도 않았고, 거의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가정이 하나 생긴다고 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B)

B와 D의 비양육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이 양육 친부모의 새 배우자와 관계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B와 D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인식의 오류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즉, B와 D는 비동거 친부모에 향하였던 감정을 계부모에게 옮기는 '전이(轉移)'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전이현상은 본 연구의 새로운 발견점으로, 재혼가정 자녀에게 인지행동적 상담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편, C는 B, D와 달리 친부모 이혼 후에도 친아버지, 친어머니 모두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었다.

친아빠는 이혼 후에도 저에게 주기적으로 오셨어요. 양육비를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중략) 저 친아빠랑 엄청 사이가 좋아요. 아빠라도 친구 같은 존재

였어요. (중략)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아빠 집에서 친아빠 집으로 갔잖아요. (중략) (친아빠 집에서 살기로 결정할 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엄마도 보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아빠도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방학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맨날 (친)엄마에게 갔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C)

B, D와 달리 비양육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이 없는 C는 '아버지의 와이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따듯하게 대해주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편안함을 느껴 친어머니에서 친아버지로 양육자를 변경한다.

새엄마가 저에게 잘 해 주셨어요. 맨날 "아들, 아들." (중략)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친)아빠한테 놀러 갔어요. 그 (친아버지가 재혼한) 가정이 있는 데를 갔는데 새엄마도, 그때는 새엄마가 아니지요. 아줌마이지요. 그냥 아빠의 와이프였죠. 2~3일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찬도 엄청 잘 해 주시고 그게 좋은 거에요. 아~! 새아빠가 엄청 불편했잖아요. (친)아빠 집의 그 편안함이 좋았나 봐요. 차에서 "엄마나 아빠한테 갈래." 하니까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엄청 아픈 말을 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엄마가 더 힘들잖아." 엄마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C)

B, C, D의 사례는 이혼 후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맺는 관계 및 전 배우자의 협력적 부모역할이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33][34]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이외에 재혼가정 내의 호칭 관련 적응에도 적용됨을 보여준다. 부모 이혼 이후에도 비동거 친부모와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한 C의 경우, 비동거 친부모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계부모에 대한 전이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재혼가정에 적응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C의 사례는 양육비 지급은 자녀에게 비양육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제공하여, 부자관계를 유지시키는 정서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35]도 보여준다. 이는 비양육친부모와 잦은 교류를 하는 청소년은 아예 만나지 않거나 드물게 만나는 청소년보다 계부모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36]과는 상반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 그 분이 편하지 않아서 아버지/어머니라 부르지 않아요 !

출산과 양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애착을 형성하는 초혼가족과 달리 재혼가족은 인위적 부모-자녀관계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쉽지 않다. 연구참여자 D는 아버지의 동거녀에게 '신뢰가 가지 않아서'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고, 아버지의 '어머니' 호칭 요청에도 '아줌마'라 부르며, 계모의 일상생활에 대한 충고를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호칭을 바꾸어라.", "호칭을 어떻게 할래?" 그것 때문에 아빠랑 싸웠지요. 엄마라고 안 한다고. 아버지가. (중략) 지금 "아줌마, 아줌마." 그렇게 불러요. (중략) 제가 참아요. 세 번 정도는. 세 번 정도의 신뢰를 아예 잃어버렸어요. 저한테 아줌마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믿음이 안 가는 거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닌 건데 자기는 우겨. 그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신뢰를 잃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랑도 많이 싸웠어요. (중략) 아줌마 문제 때문에 아버지도 중간에 껴서 제 눈치 많이 보시고요. (중략) 서로 크게 터치 없이 산다면 편할 텐데, 또 아줌마가 오지랖이 좋으셔가지고 그렇게는 또 안 되요. 요즘 제가 술을 먹는 다치면 "술 좀 작작 먹어라." 그게 싫은 거에요. 엄마행세. 나는 엄마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D)

D의 사례는 아들과 역사를 공유한 부분이 많은 친부

의 역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D가 아버지의 동거녀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봄으로써 오해가 있다면 푸는 계기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D가 아버지의 동거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에서 동거녀가 어머니 역할을 한다면서 행하는 훈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는 계부모는 계자녀에게 훈육보다는 친구 같은 역할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연구참여자 B는 인터뷰 내내 어머니의 동거남인 '아저씨'가 '좋은 사람'임에도 더 나아가 '애초에 친아빠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함에도 아저씨에게 '불편함'을 느낀다고 진술하였고, 그녀 역시 D처럼 아저씨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 아저씨가 저에게 잘 해주면 고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아빠로 받아들이기에는… 엄마 앞에서는 내색은 안 해요. 엄마가 아저씨를 좋아하니까. 아저씨가 엄마한테 맞추어주고, 되게 잘 해 주어요. 또 제 편도 들어주시고.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 "왜 나이가 몇 개인데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보호해 준다고 해야 하나? 저에게 잘 해 주시는데... (중략) 아저씨가 차라리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였으면 더 행복했겠다, 그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만났으면 엄마가 이렇게 살지도 않았을까 생각했었어요.(B)

B는 D와는 달리 아저씨의 인품이나 아저씨의 자신에 대한 태도에는 불만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도 B가 아저씨에 대해 불편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B가 아저씨에 느끼는 '불편함'은 '서로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 (아저씨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불편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중략) 그냥 밥만 먹는 게 가족이 아니라 서로 마음도 잘 알고,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 아저씨가 엄청 편하지는 않아요. 저에게 잘 해 주시는데, 서로 이야기도 많이 안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중략)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엄마 옆에 있는 사람. 엄마가 기댈 수 있는 사람. (B)

이는 B와 아저씨 간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피상적인 대화만을 나누어왔음을 보여준다. 초혼가족과 달리 재혼가족은 인위적 부모-자녀관계로 원래부터 유대감이 존재하지 않은데다가 서로 간에 유대감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흘러 서먹함이 관계의 패턴으로 굳어진 것이다. B의 사례는 재혼가정에서 계부모와의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동거친부모의 의식적인 중재와 노력, 그리고 가족으로서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족활동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B의 이어지는 진술문은 '좋은 사람인 아저씨에 대한 불편함'은 단순히 깊이 있는 대화의 부족으로 인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음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B에게 아저씨는 '엄마에게 나는 하찮은 존재'라는 자격지심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B가 '엄마의 외로움은 딸인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B : 지금은 제가 할 것도 많고 제 생각만 하고 있어서 아저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어요. (중략) 옆에서 아저씨가 잘 해줘도 그래도 엄마는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나 봐요.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못 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무언가 외로움 있는 것 같아요.
> 인터뷰어 : 그것을 왜 ○○(연구참여자 B의 이름)이가 해결해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 B : 저는 딸이니까요.

'엄마의 외로움은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B의 잘못된 신념은 '엄마가 외롭다면 내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그것을 아저씨가 해결해 주고 있다' 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져, 아저씨를 열등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B, D와 달리,

C는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표현하도록 돕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준 계모에게 편안함을 느꼈다.

> (친)아빠랑 새엄마가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냐 하면은 "오늘 학교가기 싫으니까 안 갈래." 하면 "뭐, 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 "그래. 좋을 대로 해." 이게 막 놔 버리는 게 아니라 저를 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만약에 "(친)엄마보고 싶으니 학교 안 가고 엄마 보러 갈래." 이렇게 하면 "어. 갔다 와라." 새엄마도. 새엄마가 더 그랬어요. 갔다 오라고.(C)

C가 계모에게 느낀 편안함은 시간이 흘러 친밀감과 애정으로 변하게 되고, 계모에 대한 자연스러운 친밀감은 어느 날 "엄마, 물 줘!" 라는 호칭의 변화로 표현된다.

> 새엄마가 저에게 잘 해 주셨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아들, 아들." 그런데 저는 좀 어색했지요. 엄마라고도 못 부르고. 그 단어는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것인데, 잘못 된 것 같으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물 찾고 있었나? 물이 있나 없나 하다가 물어본 거에요. "엄마 물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엄마가 "너 처음으로 엄마한테 엄마라고 해 주었다." 하면서 새엄마가 우시는 거에요. 새엄마가. 아~! 나는 맨날 "아들 아들"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한마디를 안 했구나 하는 것에 미안함. 그런 게 있었어요. (중략) 새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해요. 저 키워주시고 이해를 잘 해 주시고 했으니까. (C)

B, C, D의 사례는 친부모의 새 배우자를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부르는 문제는 단순히 호칭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가족경계에 대한 인식의 맥락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혼 가족 내에서 계자녀에게 호칭을 강요하기 보다는 자녀가 재혼 배우자를 가족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재혼가정 청소년들은 비양육친부모와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재혼 가정 내에서 새로운 구성원과의 관계에 적응하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 재혼가정 자녀의 비양육친부모에 대한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원망, 그러면서도 그리워하는 양가감정은 양육친부모의 새 배우자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 재혼가정에의 청소년 자녀의 몰입 부족을 초래하는 세 가지 내적 기제는 '친부모와의 충성심 갈등', '친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계부모에 대한 전이', '계부모와의 친밀감 형성 부족'으로 드러났다. 세 가지 내적 기제 중 계부모와의 친밀감 형성 부족 이외의 나머지 두 가지의 내적 기제인 비동거 친부모와의 충성심 갈등과 친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계부모에 대한 전이는 계부모와의 직접적인 관계 내지 상호작용 맥락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재혼 가정 내 호칭 갈등 문제를 다룰 때 성급하게 호칭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녀의 비동거 친부모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고 친부모의 이혼 관련 상실감에 대해 충분히 애도하도록 하며, 자녀가 분노의 근원을 스스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분노를 수용하도록 하는 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자녀가 친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털어내야 계부모와의 관계형성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청소년 자녀의 비양육친부모에 대한 그리움, 상실감, 원망 등의 상처에 대해 공감적 지지를 통해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자녀가 부모의 이혼-재혼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돕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개별 내지 집단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계부모가 가족원이 됨으로써 가족 내 성인역할 모델의 증가와 성인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과 같은 재혼가족의 강점을 인식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결과인 세 가지 주제별로 상담에의 함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의 첫 번째 주제인 자녀가 계부모를 인정하는 것은 친부모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

여 계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음[30]은 재혼가정 자녀에게 비동거 친부모와의 자유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어 자녀로 하여금 충성심 갈등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이혼하려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비양육친부모와의 교류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혼 후에 이러한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정기적인 상담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의 두 번째 주제인 청소년 자녀의 비양육친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계부모에 대한 전이현상은 상담가의 계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에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계부모 입장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자신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자신에 대한' 진심으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상담가는 계부모에게 청소년 자녀의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에 상처받지 말고 그(그녀)가 청소년 자녀의 비동거 친부모 대신임을 이해시켜 위축감에서 벗어나 자녀의 행동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여, 계자녀를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이해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한편 청소년 자녀에게는 전이현상을 인식시키고, 비양육친부모에 대한 감정의 내용과 그 원인을 명확히 깨닫도록 하여 그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비양육 친부모도 과오 많은 한 인간임을 이해시켜 분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이혼가정 자녀가 비동거 친부모와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한 사례의 경우, 비동거 친부모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계부모에 대한 전이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재혼가정에 적응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혼 후 자녀가 비양육친부모를 만나면 혼란을 겪게 되어 재혼가족의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36]보다 친부모와의 교류가 자녀의 재혼가정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37]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의 세 번째 주제에서 '어머니의 외로움은 자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자녀의 잘못된 신념이 계부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어져 계부와의 관계형성에 장애를 초래함이 드러났다. 상담자는 자녀 스스로가 양육 친부모에 대해 지나치게 부모화 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상담 진행과 더불어, 계부모에게는 계자녀가 자신에게 갖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투사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계부모와 계자녀로 하여금 계부모-자녀 간의 서먹한 관계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식시키고, 유대는 저절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육친부모로 하여금 새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조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담자는 계부모에게 친부모의 자리를 대체하려하기 보다는 자녀의 '정신적 멘토'로 다가가는 것이 현명함[38]을 알려주어야 한다. 계부모는 계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즉시 행동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계자녀의 반감을 살 수 있다[39]. 자녀들은 아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칭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계부모-자녀간의 유대를 함양시키는 것이 우선임을 상담자는 계부모와 양육친부모가 인식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재혼가정의 자녀가 겪는 호칭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심리적 기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재혼가족은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전이를 다시 겪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고되는데[10][12], 본 연구는 재혼 가정 청소년의 가정 내에서의 적응을 도와 재혼가정의 안정화를 도모,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재이혼에 따른 가족해체를 방지하여 사회복지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드러난 재혼가정 자녀들의 호칭 관련 갈등의 세 가지 심리 기제는 재혼가족 상담 및 청소년 상담에서 개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가지고 양적 조사를 실시하여 더 많은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급속도로 증가하는 재혼율에 비해 재혼부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40], 특히 계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혼자를 심층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청소년 계자녀가 있는 재혼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41].

앞으로 재혼가족 자녀 뿐만 아니라 계부모의 시각에서의 계자녀와의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조명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계부모-계자녀 간 갈등해결을 위한 많은 실천적 함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 본 논문의 인터뷰 자료는 김연진의 박사학위 논문 "부모이혼을 경험한 자녀의 삶에 대한 질적연구"(2017)의 자료를 활용함.

참 고 문 헌

[1]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1/index.board?bmode=read&aSeq, 2014, 2, 23.

[2] C. Smart, B. Neale, and A. Wade, *The Changing Experience of Childhood: Families and Divorce,* malden, ma: blackwell, 2001.

[3] F. F. Furstenberg, *The New Extended Family: The Experience of Parents and Children after Remarriage*, new york: guilford, 1987.

[4] D. S. Quick, P. C. McKenry, and B. M. Newman, *Stepmothers and their Adolescentchildren: Adjustment to New Family Roles*, conneticut: greenwood press, 1994.

[5] 김효순, 하춘광,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새부모 역할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23권, 제1호, pp.137-168, 2011.

[6] D. Mandell and Birenzweig, "Stepfamilies: A Model for Groupwork Wthremarried Couples and their Children," J.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14, No.1, pp.29-41, 1990.

[7] L. H. Ganong and M. Coleman,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s,* ca: sage publications, 1994.

[8] 김효순,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제14권, 제4호, pp.65-86, 2007.

[9] 김효순, 엄명용,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1권, pp.75-102, 2007.

[10] J. Gonzales, "Pre-family Counseling: Working with Blended Families," J.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50, No2, pp.148-157, 2009.

[11] J. Gosselin,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Related to Psychosocial Adjustment in Stepmother Familie Adolescents," J.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51, No.2, pp.108-123, 2010.

[12] J. Gosselin and H. David, "Risk and Resilience Factors Linked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Step-parents and Biological Parents," J.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48, No.1/2, pp.29-53, 2007.

[13] W. M. Walsh, "Twenty Major Issues in Remarriage Families," J. of Counseling of Development, Vol.70, pp.709-715, 1992.

[14]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1/index.board?bmode=read&aSeq=310523, 2014, 2, 23.

[15] 고은영, 서영석, "재혼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가족생활적응의 관계: 가족경계혼란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2호, pp.397-419, 2012.

[16]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17] 송명자, *발달심리학,* 학지사, 2011.

[18] 지승희, 오혜영, 이현숙, "사이버상담 사례에 나타난 재혼가족 여자청소년의 어려움," 청소년상담연구, 제20권, 제1호, pp.107-126, 2012.

[19] 임춘희,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에 대한 연구-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재혼가족신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13권, 제3호, pp.79-102, 2006.

[20] 김효순, "새부모 양육태도유형과 재혼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0권, pp.245-268, 2010.

[21] B. M. Stoll, G. L. Arnaut, D. K. Fromme, and J. A. Felker-Thayer, "Adolescents in

Stepfamilies: A Qualitative Analysis," J. of Divorce & Remarriage, Vol.44, No.1-2, pp.177-189, 2005.

[22] M. L. Keisha and B. M. Tamera, "Attachment to Par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 Examination of Young Adult College Students in Intact Families and Stepfamilies," J. of Family Psychology, Vol.18, No.4, pp.600-608, 2004.

[23] E. C. Shannon, "Family Structure History and Adolescent Adjustment," J. of Family Issues, Vol.29, No.7, pp.944-980, 2008.

[24] R. E. Emery, *Renegotiation Family Relationships: Divorce, Child Custody and Mediation,* ny: gilford, 1994.

[25] M. Coleman, L. Ganong, and M. Fine, "Reinvestigating Remarriage: Another Decade of Progres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2, pp.1288-1307, 2002.

[26] 박선영, "재혼초기 모친과 동거하는 여중생의 가족생활갈등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6권, 제1호, pp.285-304, 2015.

[27] 임춘희, "재혼가정 청소년의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가족관계 인식과 교육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5권, 제5호, pp.743-760, 2006.

[28] K. W. Doyle, S. A. Wolchik, and S. Dawson-McClure, "Development of the Stepfamily Events Profile," J. of Family Psychology, Vol.16, No.2, pp.128-171, 2002.

[29] E. Sherman and W. J. Reid,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30] K. Morrison and W. Stollman, "Stepfamily Assessment : An Integrated Model," J. of Divorce & Remarriage, Vol.24, No.l, pp.163-182, 1995.

[31] A. I. Schwebel and M. A. Fine, *Understanding and Helping Families-A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94.

[32] Y. Lincoln and E. Guba,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1985.

[33] 유희정, "이혼 후 비양육부/모의 자녀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고찰: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연구, 제1권, 제1호, pp.325-351, 2004.

[34] P. R. Amato,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2, pp.1269-1287, 2000.

[35] J. A. Seltzer, "Relationships between Father and Children who Live Apart: The Father's Role after Separatio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3, pp.79-101, 1991.

[36] M. Crosbie-Burnett, "Impact of Custody Arrangement and Family Structure on Remarriage," J. of Divorce, Vol.13, No.1, pp.1-15, 1989.

[37] E. B. Visher and J. S. Vishe, *Old Loyalties, New Ties,* brunner/mazel, 1988.

[38] P. G. Mulford, *Keys to Successful Stepmothering,* ny: barrons educational series inc, 1996.

[39] E. Hetherington, "An Overview of the 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with a Focus on Early Adolescence," J. of Family Psychology, Vol.7, No.10, pp.39-56, 1993.

[40] 박희정, 변상해, "재혼부부의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지논문지, 제17권, 제7호, pp.236-252, 2017.

[41] 김효순, "재혼가족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새부모·새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pp.262-280, 2015.

저 자 소 개

안 희 란(Hee-Lan An) 정회원

- 2000년 2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09년 8월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15년 2월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부경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상담

김 연 진(Yeon-Jin Kim) 정회원

- 2013년 9월 ~ 현재 :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988년 2월 : 이화여대 사회학과 (문학사)
- 1991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 석사)
- 2017년 8월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박사)

<관심분야> : 이혼가정 청소년, 가족상담, 노인복지